

‘더 안전한 순천’...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개최

교통·낙상·폭력범죄·자살예방 등 5개 분야 안전증진 사업 손상감시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모니터링 손상사망률 감소

순천시가 더 안전한 순천을 위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순천시는 지난 24일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안전 증진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증 받아 국제안전도시로 앞서 나가기 위한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을 비롯해 안전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안전도시란 주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고와 손상, 폭력, 자살 등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시는 2018년 전남 최초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은 이후 지난 8월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재공인을 획득했다. 이후 손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

인 모니터링을 통해 손상사망률을 감소시켰다.

특히, 교통·낙상·폭력범죄·자살예방·재해재난 5개 분야에서 102개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해 분야별 안전사고 감소 및 시민 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했다.

선포식은 제4회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시상, 공인 협정서 서명, 공인패 전수, 건설현장 안전문화 실천을 위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단체 관계자들과 선포식에 참석한 시민들의 '재난은 막GO, 위험은 줄이GO, 안전은 지키GO'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실"이라며 "재공인을 계기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28만 순천시민의 더 나은 내일, 더 안전한 순천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노관규 순천시장과 직원, 순천경찰서 관계자 등이 지난 24일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에서 '재난은 막GO, 위험은 줄이GO, 안전은 지키GO' 문구가 쓰여진 띠를 들어보이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학사모 쓴 결혼이주여성 “땡큐, 광양시 가족센터”

초등~고등 검정고시 취득반 운영...올해 29명 등 3년간 82명 합격 도와

광양시 가족센터는 올해 결혼이주여성의 검정고시를 도와 2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가 검정고시 취득반을 운영하며 배출한 시험 합격자는 3년간 모두 82명이다.

검정고시 취득반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공모하고 포스코1%나눔재단이 후원한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광양시 가족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취득반을 운영해왔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컴퓨터 관련 자격증반도 마련했다.

검정고시 취득반을 시작한 2021년에는 결혼이주여성 25명이 초등과정에 합격했다.

지난해에는 초등 15명, 중등 13명 등 28명이 합격장을 받았다. 올해는 초등 10명, 중등 9명, 고등 10명 등 총 29명이 합격했다.

센터는 올해 3월 희망자를 모집하고, 5월부터 8월 말까지 매주 두 번 3시간에 걸쳐 초·중·고 과정별 수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9월1일 29명의 교육생이 합격통지를 받았다.

센터는 최근 올해 합격자 29명을 초청해 수료



광양시 가족센터 '검정고시 취득반'을 통해 올해 합격통지를 받은 결혼이주여성 29명이 최근 열린 수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증과 합격증서, 노트북 등을 전하며 합격을 축하했다.

초등, 중등과정을 거쳐 올해 고등과정에 합격한 단혜림(37·베트남)씨는 "초등과정부터 고등과정까지 공부하면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대학 입학이라는 꿈을 위해 건널 수 있었다"며 "내년에 대학입학(한국어)을 준비하고 있으며 졸업 후 다문화가정과 광양시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소와 광양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지원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금실 딸기' 베트남·싱가포르 수출

내년 4월까지 60t

곡성군이 '실향 딸기' 대신 '금실 딸기' (사진)로 수출 주력 품종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곡성군은 27일 곡성멜론주식회사가 수출용 금실 딸기 1.5kg 들이 100상자를 경남 산청군 농업회사법인 조이팜에 납품하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곡성멜론주식회사가 올해 처음 생산한 금실 딸기는 이번 첫 수출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60t을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과 싱가포르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곡성멜론주식회사는 그동안 주력 수출 품종이었던 '실향' 대신 올해 '금실' 품종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당도가 높고 단단해 수출에 특화된 '금실' 품종을 택하게 됐다.

경남농업기술원이 지난 2016년 개발한 '금실'은 저장성이 뛰어난 '매향'과 당도가 높고 과가 큰 '실향'을 교잡해 만든 품종이다.

이 품종은 전체 딸기 수출 점유율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곡성멜론주식회사 생산 참여 농가들은 수출을 활성화해 내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실' 품



종 재배를 선택했다.

지난 7월에는 금실 딸기 품종 개발자인 경남농업기술원 윤혜숙 박사를 초청해 금실 딸기 재배 기술 교육을 받기도 했다.

이날 교육에서 참여 농가들은 새로 금실 품종을 재배하면서 생기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

곡성멜론주식회사는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물류생산지표지 지정돼 딸기와 멜론 수출에 앞장서고 있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딸기 수출을 시작으로 딸기 농가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가에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공모

내달 1~6일 13명

여수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사무국장 1명, 팀장 6명, 팀원 6명 등 총 13명이다. 근로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

최종 선발자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지원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보수는 사무국장의 경우 지방 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 팀장의 경우 지방 임기제공무원 7급 상당이다.

팀원이면 여수시 생활임금(1일 8만5680원)이 적용된다.

사무국장·팀장은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연봉 외 급여가 별도 지급된다.

팀원은 정액급식비가 별도로 주어진다.

공모에 지원하려면 공고일(11월20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거주지와 성별 제한은 없다.

남자의 경우 병역 면제 또는 병역필한 자이다. 단 사무국장과 팀장은 도시재생 관련 학과 전공자나 관련 분야 경력자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2월1일부터 6일까지 도시재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는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1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문장근 여수시 도시재생과장은 "여수시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란다"며 "공정한 선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

구례영배영농조합법인, 농진청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대상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기술 지원 2020년부터 새 품종 도입 생산량의 80% '특등급' 차지 '청냇골 맛배'로 판로 확대

구례군이 농촌진흥청 주관 '2023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공모에서 대상 수상 단체를 배출했다.

올해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로 뽑힌 단체는 구례영(young)배영농조합법인(대표 남강현)이다.

이 법인은 이번 대회에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구례영배영농조합법인은 평균 연령 52세의 농업인 9명으로 구성됐다.

15.5ha의 배 재배지 가운데 7.8ha에서 국내 육성 배 품종인 '조이스칸'과 '창조'를 생산하고 있다.

구례영배영농조합법인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으로 지난 2020년부터 새 품종을 도입해 재배하고 있다.

새 품종으로 생산한 배의 80%는 '특등급'이 차지하고 있다.

구례영배영농조합법인은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해 토양의 영양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적정한 비료 사용량을 준수하고 있다.

또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의 고품질 재배 기술 교육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기술 역량을 꾸준히 키워가고 있다.

이 법인은 지역색을 살린 자체 상표 '청냇골 맛배'를 내걸고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출하처별 포



농촌진흥청 주관 '2023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구례영배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장을 달리하는 차별화도 꾀했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신기술 적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으로 품질 좋은 국내 육성 신품종 배에 대한 재배 면적도 점차 늘려갈 구상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육성한 신품종을 재배하면서 국내의 판로 개척을 통해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알리는 최고품질농산물 생산단지를 해마다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20여 곳이 응모한 가운데, 각 도에서 1차 선발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 2차 서류심사와 3차 발표평가를 거쳤다. 심사 결과 최종 대

상 1곳, 최우수상 3곳, 우수상 5곳이 선정됐다.

박근구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구례 지역에 우수한 국내 육성 품종을 확대 도입해 농업인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보성군 65세 이상 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150%까지 혜택

보성군이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 확대는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올해 9월부터 시행됐다.

보성군은 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상 기준을 보성에 사는 65세 이상 중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상향 조정했다.

백내장 수술 전에 병·의원에서 진단서를 받은 뒤 신청 서류를 갖춰 보건소를 찾으면 된다.

보건소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은 뒤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비는 1안(眼) 25만원, 2안 50만원 한도로 책정된다.

보성군은 지역 안과 의원 2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백내장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총 738명, 1282안의 백내장 수술비 2억9400만원을 지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어르신들이 노년기 시력을 회복해 세상을 좀 더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촘촘한 노인복지 체계를 구축해 노후 걱정 없는 보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